

보호관찰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이 은 진[†]

경기대학교

본 연구는 보호관찰 대상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에 기초한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성폭력 행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3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참가 청소년들에게 성적대응전략, 우울증, 공격성, 충동성과 대인불안 척도를 프로그램 참가 사전과 사후에 평가하였다. 부모들과의 면접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참가 청소년들의 강간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상상을 성적대응전략으로 활용하는 경향, 정서적 우울경향, 언어적 공격성과 무계획적 충동성, 일반적 대인불안과 집단적 대인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개별적인 부모역할 상담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과 의의를 정리하고 성폭력 가해 청소년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에 대한 제언하였다

주요어 : 보호관찰 성폭력 가해 청소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성적대응전략 척도

[†] 교신저자 : 이은진,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Tel: 031-249-9198, E-mail: lej1130@hotmail.com

청소년기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습득해 나가며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범죄로 인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격리되거나 낙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뿐 아니라 사회에도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성범죄의 상당 부분이 청소년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 모든 강간범의 20%, 그리고 아동에 대한 폭력의 50% 이상이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조사결과들이 보고되고(Becker & Abel, 1985; Longo & Groth, 1983, Smith, 1984) 사회문제화되면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청소년 성범죄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개인의 사회적 규범 학습은 청소년의 비행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관계 중심으로 진행될 때 범죄예방의 효과가 증진된다. 규범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기통제력을 형성해가게 된다. 규범학습을 위해서는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고, 일탈 행위 발생시 부모가 인식하여 문제시하며, 분명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진국, 2006). 이러한 규범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 중의 하나가 가정일 것이다. 가정환경의 교육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역설되어 왔으며, 청소년기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밝히는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강선경, 2008, 신애현, 1998).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애착은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적응, 자아존중감, 신체적 건강 등 여러 측면에 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경험을 하지 못한 이들은 내면의 상처를 갖게 되고 이는 대인불안이나 자기비하 등의 정서적 부적응을 낳게 되고,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할 수도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범죄이론들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긴장이론 등으로 정리되어왔다. 이러한 개인수준의 이론적 설명들은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도 개인의 정신적 문제나 발달과정 상 발생된 것으로 추론하는 정서적 문제와 관련지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들과 연결되어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리하여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프로그램들도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한 치료적 처치들을 중심으로 고안되어왔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해온 인지행동치료자들도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이나 성폭력 행위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처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신의진, 2007).

그리고 성범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성장과정에서 성적학대나 다른 폭력의 피해경험이 경향이 많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Hall & Barongan, 1997). 우리나라에서도 문제행동이나 비행에 대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관계에 대한 지각이 미치는 영향들을 언급한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다(고성애, 2002; 김경화, 1999; 이성식, 1995). 부모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 신념을 전달하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비밀관적인 감시와 훈육, 그리고 친사회적 모델의 부재, 무시, 학대는 범죄와 폭력행동을 이끈다

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Smith, 1984; Wisdom, 1989)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치료적 개입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성범죄 가해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효과적이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방향을 제시하였다.

성범죄를 억제하거나 재범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를 위해 우선 성범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방안을 모색하고 추후 제도 내에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차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 Malamuth와 Brown(1994)은 반사회적, 병리학적 생활방식과 같은 특징적 생활양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성향,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및 자기행동에 대한 자책감의 부족과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다.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즉 공감능력의 결핍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분노를 혐오로, 두려움을 놀라움으로 대부분 잘못 인식한다(Hudson, Jones, Marshall, Wales, McDonald, Bakker & McLean,

1993). 자기 보고식 질문에 의하면 이들은 여성의 자기주장을 적대적인 것으로, 친절한 것은 유혹하는 것으로 여성의 감정을 해석하는 등 부적절했으며(Malamuth & Brown, 1994), 강간범은 피해자들 역시 성을 원하고 즐거워한다고 잘못된 인식을 한다. 또한 이들은 자기 도취적 성향을 가진다. 이들은 성-공격적인 행동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나 힘을 나타내려하고 성범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낙약함을 잊고자 한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정신분열적 성향은 사회성 부족, 소외감, 둔감하고 단조로운 정서행위 등이다. 친구와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며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빈약하고 사회관계 자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부족하며, 특히 분노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분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해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Carich, Newbauer & Stone, 2001).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되어온 고립이나 공감능력 평가보다는 공격성이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활동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실시하고 그 변화 경향을 측정하였다.

성범죄자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하여 Hudson 등(1993)은 실제 강간범과 아동 성폭력범들이 분노, 혐오, 공포를 종종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고분고분하게 복종하고 자신만큼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장면에서도 그들이 즐기고 있다고 믿고 그런 정보를 선택적으로 찾아 처리하는 것이다. 이들이 왜 부인

과 축소와 같은 인지적 왜곡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설명의 하나는 이들이 학습한 성역할 또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겠다. 대표적으로 Malamuth(1981)의 강간 통념(rape myth)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핑계 거리를 제공하고 행위자체를 부정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성폭력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Carich, Newbauer & Stone, 2001).

이와 같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심리적 특성들은 청소년기에 성범죄를 유발하는 위험요인들과도 연관이 있고, 청소년기의 성적 일탈 및 비행은 성인기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기 때 공격성 수준 상 상위 5%에 해당되는 소년들 중 약 39%가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평균 이상의 공격성을 유지한다(Patterson, 1982)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성범죄 예측 및 위험성과 관련된 이런 소양은 이미 청소년기에 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발달과정에서 발현되는 공격성의 표출로 치부해버리기에 청소년 성범죄자의 평생 지속성은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Abel, Mittleman, & Becker, 1985; Becker & Abel, 1985; Longo & Groth, 1983; Groth, Longo, & McFadin, 1982). 따라서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해 앞서 언급했던 여러 요소들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고위험성 범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는 시급한 것이다.

청소년 비행을 일으키는 촉발요인들은 크게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네 가지 요인 모두가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격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정, 학교, 친구의 특성이나 관계와 함께 사회적인 환경 또한 청소년기 비행의 요인으로 고려되기에 충분하다. 가정은 청소년의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가족의 낮은 경제적 지위나 결혼과 같은 가정의 구조적 측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의 관계, 훈육방식 등의 기능적 측면의 결혼이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유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 방식이 청소년 비행이나 청소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왔다(고성애, 2002; 김경화, 1999; 김성연, 1998).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유발하고 비행으로 이어지는 고리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무시는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교 폭력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단절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기도 한다(이성식, 1995; 이창수, 1999; Farrington & Loeber, 2000). 반대로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은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Elliott & Voss, 1974; Liska & Reed, 1985). 즉 부모와의 유대가 강해질수록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하며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청소년의 일탈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이다(정진성, 2008).

청소년기는 가정의 영향에서부터 또래집단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시기로 동료들과의 관계나 그들의 가치가 청소년 자신들의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친구들과의 애착을 중시하는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비슷한 유형의 친구를 선택한 결과라고 보는 선택가설보다 비행친구와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사회학습 과정의 결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는 촉진가설이 실증연구들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로 힘을 더하고 있다(Esbensen & Huizinga, 1993). 이은미(2000)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환경요인 중에서 가족영역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영역에서는 폭력행동을 하는 친구의 유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으로는 약물 사용여부가 각각 학교폭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해보았다. 연구결과 또래집단의 학교폭력만이 학교폭력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는 남학생이고 고등학생인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다.

청소년의 비행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촉발요인들이 존재하며, 각 요인들은 분리되어있다가보다는 서로 간에 연결되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가정에서의 결손이나 의사소통 문제들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며 학업이나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사회의 제도나 가치들이 각 가정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이고 광대한 것이다. 이 모든 촉발요인들을 한꺼번에 다루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유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많은 회기를 요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추어 개별 촉발요인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가정, 학교, 사회가 가진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성폭력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요건으로 엄소용(2007)은 고위험 가해자를 대상으로 할 것, 가해 행동자체나 이에 밀접하게 관련된 행동을 목표로 할 것,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할 것과 인지 및 행동에 초점을 둔 명확히 구조화되고 검증된 이론적 방법을 사용해 직접적 접근을 해야 함을 들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명확한 계획을 갖고 계획대로 적용하며 사용모델에 대해 훈련받고 경험이 있는 진행자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건에 근거한 성폭력 행위자 대상의 인지 행동적 치료 프로그램은 동기화 과정이나 부인과정을 살피고 가해행위에 대한 분석, 왜곡된 성적 각성과 환상에 대한 분석, 인지적 왜곡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공감, 대인관계 기술 훈련, 지속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이끌어 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들은 1950년대 이후 주류를 이루어온 행동적 접근에서 시도해온 행동요법들이 별 효과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Quinsey & Earls, 1990), 1970년대 들어 성폭행 가해자들의 인지적 왜곡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인지적 왜곡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사회적인 기술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연구들에 근거하여 1980년대 들어 성교육, 공감능력, 사회적 기술, 자존감 증진과 분노 조절 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었다(Abel, Becker, & Cunningham-Rathner, 1984; 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 Becker, 1988). 이후 공공예방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성폭행은 법률 정의의 개념에서 공공의 건강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4년간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해 인지행동 치료 사업을 진행해 왔다. 송원영(2007)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인지행동치료 집단의 재범율이 비수강집단이나 기타 프로그램 참가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지행동치료의 재범억제효과가 지속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12개월의 추적 기간이라는 제한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비수강 집단의 12개월 추적 시점에서 24.1%의 재범율과 인지행동 치료집단의 8.8%와 비교할 때 실제로도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그리고 성범죄 청소년들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정서 영역의 우울과 불안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고 무계획 충동성과 강간통념 영역 전반에서 현저한 저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청소년들의 40%정도가 품행장애 이외의 정신장애 진단 소견을 보이며, 지능 검사에서도 30%가 IQ 80이하의 제한된 지적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영준, 2007).

이러한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정신병리적 특성과 낮은 지적능력은 집단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가해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저조하며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 평가에서도 공감능력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송원영, 2007)도 기존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모색을 생각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특성화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신의진(2007)은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처우에 대한 제언에서 가족 환경 변화를 위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

조한 바 있다.

청소년비행이나 범죄와 관련하여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성범죄자는 성장과정에서 성적학대나 다른 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경향이 많고 가족과의 관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all & Barongan, 1997).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타인과의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보이는 등 가족 내 초기 대인관계부터 장애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들은 부모를 모두 적대시하고(Levant & Buss, 1991)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호적이지 못하고(Tingle, Bernard, Robbin, Newman & Hutchinson, 1986),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강압 등을 통한 성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mith와 Israel(1987)은 성폭력 가해자 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가해자인 자녀들은 부모들과 정서적 거리감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가족 내에 외부에 알리는 것이 금지된 비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미혼인 소년범들의 가족구조를 범죄백서(2006)를 통해 살펴보면, 70%이상이 부모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없는 경우는 4%내외였으며, 편부나 편모의 수치는 8-9%내외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살고 있다는 것이 그다지 큰 범죄억제요소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가족의 구조적 결손보다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 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수정, 2007; 정소희, 2006). 그러나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에 대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와 자녀들은 가정의 구조적 환경이 상대

적으로 열악하였으며, 서로에 대한 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를 들었고 그 이유는 혈연관계라는 것이었다. 부모들도 자녀를 혈연관계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는다고 하였으며 자녀가 성실한 태도를 갖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기대를 성폭력 가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활용해 나감으로써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체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감소를 위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실시 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청소년 비행 위반자들에게는 부모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한다(Patterson, 1982; Bank, Marlow, Reid, Patterson, & Weinrott, 1991). 집단 강좌 속에서, 부모들은 일관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는 기법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법들을 연습하고 배워간다. 이러한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자녀와 함께 강의를 수강한다는 사실은 부모들이 가족구조를 명료화해나가고 서로에게 반응하고, 자녀들과 의사소통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Constable & Lee, 2003).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연구자들이 부모교육의 실태를 알리고 그 필요성을 제기해왔다(정일환, 최경희, 1997). 연구자들은 가정, 학

교,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전문상담원을 통한 가정상담실 운영, 범죄 예방 위원회와 보호관찰 대상자 부모와의 연계성 제고, 부모교육 활동을 위한 예산 확충 등 다섯 가지 활성화 방안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방안들은 현장에서 요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으나 현장에서 충분히 수용되지는 못하였다. 제시되었던 대부분의 방안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입되어 활용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보호관찰 대상이나 비행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모역시 변화해야한다고(이정미, 2004; 김성연, 1998) 주장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기존의 성폭력 가해 청소년을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부모교육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 부모 교육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사전과 사후 검사에 대한 변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부모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 위한 자료를 연구자 개별면접을 실시하고, 개별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부모-자녀 관계 강화에 유효한 프로그램 개발과 부모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사용되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성범죄 가해 청소년과 부모교육 사업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경기지역 내 성범죄 가해 청소년과 부모를 대

상으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참가자 연령은 14-20세, 성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가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이 1차 선정하고 진행자와 협의하였다. 전체 일정은 1차 청주 보호관찰소, 2차 수원 보호관찰소, 3차 안산 보호관찰소 순으로 실시되었다. 청주 보호관찰소 프로그램은 6월 19일(목)에서 8월 7일(목)까지 총 16명(대상자 10명, 부모 및 기타가족 6명), 수원 보호관찰소는 8월 26일(화)에서 10월 9일(화)에 총 15명(대상자 10명, 부모 및 기타 가족 5명), 안산 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수)에서 12월 3일(수)까지 총 14명(대상자 10명, 부모 및 기타 가족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성폭력 가해청소년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교육은 구체적으로 대상자 교육 참관, 개인이나 집단 면담과 교육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참석한 부모님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대상자들의 교육을 참관하였고 주진행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추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프로그램 진행과 면담은 상담심리학 박사이며 상담전문가인 본 연구자와 범죄심리학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하였다. 대학원생들은 비행청소년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으며, 본 연구의 프로그램 실시과정에서도 2-3인의 가해 청소년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개별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가를 독려했다.

가해청소년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존의 성폭행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인간존중 프로그램’ 진행 지침서를 기반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토대가 된 프로그램은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학 연구소에 의뢰한 성폭력 가해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사업의 결과 만들어진 총 40시간의 프로그램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16시간의 8회기 프로그램으로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실시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각오를 다지고 현재와 미래 생활을 새로이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교육활동들로 구성하였다. 비교적 단기간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공격성과 분노조절 훈련,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이나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 훈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활동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오를 다지고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체험과 참여를 위주로 성교육과 법교육을 실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킨 피해자 공감의 회기를 따로 가졌다. 전체 프로그램의 시간과 회기는 보호관찰소의 현장 사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장기였으며, 14-20세의 성폭행 가해 청소년 1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실시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님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교육은 구체적으로 대상자 교육 참관, 개인이나 집단 면담과 교육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부모나 보호자들의 개인사정으로 계획되었던 5-8회 교육의 동반참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육

생들의 부모가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님과 동반을 가정한 프로그램은 실시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은 부모님이 프로그램 내에서 자녀와 직접 일대일 관계를 하는 형태에서 관찰하거나 집단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식으로 수정되어 진행되었다. 부모교육에는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는 부모프로그램 안내, 자녀와의 의사소통(MBTI 성격유형검사), 자녀와 함께하는 성교육(성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인식), 피해자 공감하기(7회기)와 개별면담이 진행되었다. 수료식에 초대하고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평가도구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설문지를 이용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양적 평가를 하고 면접조사를 통해 질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양적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대상자들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프로그램 사전 평가에서 실시된 검사들을 사후에 다시 실시하였다.

성적대응전략평가: CUSI (Coping Using Sex Inventory). Marshall(2001)이 제작한 CUSI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상상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를 평가하는 도구로, 성적 환상, 자위행위, 포르노테이프 이용, 강제적 성행위 등 네 가지 범주의 행위를 평가하며, 총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로서 성적 행위에 대한 상상을 스트레

스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자주 사용할수록 점수가 높다. 하위척도로는 합의된 성행위, 강간, 아동성학대 등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이 검사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84, .83, .80으로 보고되었다.

우울증 척도: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orey(1991)가 제작한 성격평가 도구로서 다양한 정신병리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성격검사로 임상진단, 치료계획 및 진단 집단을 변별하는데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상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성격검사이다. 정신장애를 측정하는데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22개 척도에 344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4점 척도(0-3)로 이루어진다. 이 검사는 4개의 타당도 척도와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 고려척도와 2개의 대인관계척도가 있으며 여기서 임상척도인 우울증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3개의 하위척도로 인지적 우울, 정서적 우울, 생리적 우울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 검사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89, .89, .79로 보고되었다.

공격성 척도: BDI (Buss-Durkee Inventory). 공격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Buss & Durkee(1975)가 제작한 BDI(Buss-Durkee Inventory)를 노안녕(1983)이 번안하고, 이를 신지원(1998)이 아동, 청소년용으로 좀 더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공격 대상자에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반응)·언어적 공격성(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반응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

주하는 것)· 직접적인 공격성(화나게 만든 사람 혹은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행동)· 간접적인 공격성(공격을 유발한 사람이 아닌 다른 표적에 대한 것이거나 구체적인 목적이 아주 모호한 공격적 행동 혹은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악의 있는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의 4개 하위차원으로 나뉜다. 총 4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이 검사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보고되었다.

충동성 척도: 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

충동성 수준 측정을 위해 Barratt가 제작한 BIS-II 판(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을 이 현수(1992)가 우리말로 번역한 충동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충동성이라고 하는 성격특질 하나만을 검사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총 23개의 문항으로 4점 척도이며, 인지충동성(cognitive impulsiveness)· 운동충동성(motor impulsiveness)· 무계획 충동성(non-planning impulsiveness)의 3개 하위차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검사의 신뢰도는 반분법에 의한 신뢰도 계수 .81로 보고되었으며(송중찬, 1996), 본 연구에서는 반분신뢰도 .87,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대인불안 척도. 대인 불안 척도는 권영배(1993)가 사회적 회피 및 우울 척도(김창근, 1990)와 부끄러움 수준 검사(양승관, 1991)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인을 4가지로 규정하여 제작 사용한 것으로, 일반적 대인불안(대인불안의 총괄적 의미로서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해

지속적이고 불합리한 두려움이 생겨 회피행동을 하게 되는 대인불안 상태를 측정한다)· 집단사회적 대인불안(집단 및 사회생활에서 갖게 되는 대인불안으로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불편감 및 열등감 등과 다른 사람과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불안 상태를 측정한다)· 친구관계에서의 대인불안(친구나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비하, 신체적 경직성, 사교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인불안을 측정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인불안(항상 대면하는 선생님이나 웃어른, 동장님과 같은 특정인과의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하게 긴장하거나 초조해하여 신경과민반응 등을 보이는 대인불안 상태를 측정한다)의 4개의 하위차원으로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검사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78, .83, .93, .86으로 보고되었다

질적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회기별 보고서. 항목은 ‘오늘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였습니까?’, ‘모듬선생님이 나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었습니까?’, ‘오늘 프로그램이 흥미가 있었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참여하고 싶습니까?’ 등으로 구성되었다. 멘토들이 대상자들의 만족도 응답과 변화를 기록하여 회기별 보고서를 기관용, 부모용으로 별도 작성하고, 추후 회기 진행에 반영하였다.

부모면접. 가족 중에서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으며, 면접질문의 영역은 청소년의 경우와 유사하였으나 질문 방식을 차별화하였다. 성폭력 행위에 대한 인식, 부모자녀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바램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하여 부모나 자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하도록 하였다. 부모들에 대한 질문의 예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자녀가 참가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계십니까?’와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하는 바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을 말해 주십시오.’ 등이다.

가해 청소년면접 자신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바램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성폭력 행위에 대한 인식부분에서는 범죄내용과 자신이 받은 처분 결과, 범행동기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가족관계에서는 기본적인 가족사항과 함께 의사소통 수준이나 방식, 지지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가가 가해청소년들의 성적태도, 우울증, 충동성, 대인불안과 공격성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양적평가척도에서 간과될 수 있는 질적인 평가 자료들을 얻고자 매회기 멘토들의 참여관찰과 보고서 기록 내용을 통해 참가청소년들의 변화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부모교육의 효과는 부모들의 참석 소감문과 면담을 통해 정리하였다.

결 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성범죄 가해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변인과 범죄내용

성폭력 가해 청소년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효과를 사전사후에 걸쳐 평가하고자 8회 프로그램 참가대상자 30명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가해 청소년 자료의 최종분석은 사고나 학업 등 개인 사유로 프로그램에 3회 이상 결석한 6명과 사전과 사후 설문지에서 신뢰성 없는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된 2명의 자료를 제외한 22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표 1).

사전 사후 평가

성적대응전략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성적 행위나 그에 대한 상상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에 대한 사전과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세 가지 하위척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성적 환상, 자위행위, 포르노 그래프 이용, 강제적 성행위 등을 덜 사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하위척도 중에서 강간($t=1.951, p < .10$)과 아동 성학대($t=2.351, p < .05$)에 대한 상상을 이용하는 정도에 대한 점수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PAI우울척도의 하위 척도인 정서적 우울증($t= 2.120, df= 21, p=.049$), 생리적 우울증($t=-1.779, df= 21, p=.090$)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측정되었다. 정서적 우울과 인지적 우울은 프로그램 이후 감소된 경향을 보였으나 생리적 우울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나 수면장애와 관련

표 1. 프로그램 참가 가해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변인과 범죄내용

	나이	거주지	학력	범죄내용	가족	탈락사유
1	20	청원군	고교중퇴	특수강간등	양친사망, 남동생	
2	20	증평군	대학재학	특수강간등	부모, 형	
3	19	괴산군	고교재학	강간등치상	부모, 남동생 2	
4	20	청주시	고교재학	주거침입강간등	어머니, 형	
5	18	증평군	고교 재학	특수강간	아버지, 형	
6	16	청주시	중학교재학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4세여아)	부모, 형, 남동생	*결석3회
7	14	청주시	중학교재학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5세여아)	부모, 형	
8	20	청원군	고교재학	특수강간	조부모, 부모, 여동생	
9	18	괴산군	고교재학	강간상해/공동상해	부모, 여동생	
10	20	청주시	대학재학	강간등치상	부모, 남동생	*결석3회
11	15	화성	고교재학	특수강제추행		*교통사고
12	18	용인	중퇴	강간등치상	어머니, 형	
13	19	안양	중퇴	특수강간		*취업
14	18	의왕	중퇴	특수강간	부모	
15	18	의왕	중퇴	특수강간		
16	17	의왕	고중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어머니, 형	
17	17	의왕	고중퇴	준강간	부모	
18	17	의왕	고교재학	특수강간	부모, 동생	
19	18	수원	고중퇴	특수강간		
20	16	화성	고교재학	특수강간등상해	부모	
21	19	안산	고교재학	특수강간	어머니, 형	
22	20	시흥	대학재학	특수강간	아버지, 동생	
23	19	안산	고교재학	특수강간	아버지, 누나	
24	19	안산	고교중퇴	특수강간	부모, 형	
25	20	안산	고교재학	특수강간, 절도	부모	*수술
26	18	시흥	고교재학	특수강간	어머니	
27	17	시흥	고교재학	특수강간	부모, 여동생	
28	18	안산	고교재학	특수강간	어머니	*4회결석
29	19	안산	고교졸업	특수절도, 강간, 무면허	부모, 형	*4회결석
30	18	안산	고교재학	특수강간	부모, 여동생	*4회결석

표 2. 성적대응전략평가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척도	프로그램 효과		t
	사전	사후	
강제된 성행위	9.05(4.23)	8.38(3.76)	.834
강간	8.52(2.86)	7.81(2.09)	1.951*
아동 성학대	4.62(1.28)	4.14(.48)	2.351**
총점	20.86(7.28)	19.00(5.35)	1.659

* $p < .10$, ** $p < .05$

표 3. 우울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척도	프로그램 효과		t
	사전	사후	
정서적우울	7.68(5.45)	6.23(5.20)	2.120**
인지적우울	8.18(4.92)	7.55(5.27)	.877
생리적우울	7.55(3.39)	8.55(4.17)	-1.779*
총점	23.41(12.07)	22.32(13.61)	.835

* $p < .10$, ** $p < .05$

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들로 구성된 척도의 내용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프로그램 참가 후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는 문항에 응답 시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증가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공격성

프로그램 참가후의 하위척도별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에 비해 낮아졌으며, 언어적 공격성의 경우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122$, $df=17$, $p=.049$). 언어적 공격성은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반응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노를 언어로 표현하거나 논쟁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에 관한 문항들이

표 4. 공격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척도	프로그램 효과		t
	사전	사후	
신체적 공격성	12.00(4.24)	11.56(5.13)	.358
언어적 공격성	17.00(3.34)	15.17(3.29)	2.122**
직접적 공격성	22.11(3.29)	20.56(5.56)	1.391
간접적 공격성	10.83(1.95)	10.67(2.95)	.277
총점	61.94(10.90)	59.11(13.83)	1.119

* $p < .10$, ** $p < .05$

표 5. 충동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척도	프로그램 효과		t
	사전	사후	
인지충동성	9.26(1.94)	9.11(2.90)	.448
운동충동성	6.89(4.04)	7.42(4.33)	-.758
무계획충동성	12.53(3.20)	11.05(3.75)	1.834*
총점	28.68(6.37)	27.58(7.30)	.849

* $p < .10$, ** $p < .05$

포함되었다. 프로그램 내에서의 분노다루기 활동 등이 긍정적인 효과는 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동성

충동성에 대한 하위 척도별 점수는 사전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무계획 충동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t=1.834$, $df= 18$, $p=.083$), 운동 충동성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인불안

대인불안의 변화를 하위척도별로 살펴본 결과, 일반적 대인불안($t=2.084$, $df= 17$, $p=.054$)

표 6. 대인불안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척도	프로그램 효과		t
	사전	사후	
일반적 대인불안	3.27(2.85)	2.65(2.18)	2.084*
집단적 대인불안	1.88(1.65)	1.29(1.40)	1.830*
친구관계 대인불안	5.12(5.00)	3.71(3.62)	1.599
특정인에 대한 대인불안	2.24(3.03)	1.76(2.14)	.889
총점	12.71(11.06)	9.41(7.98)	1.974*

* $p < .10$, ** $p < .05$

과 집단적 대인불안($t=1.830$, $df= 17$, $p=. 086$)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친구관계나 특정인에 대한 불안도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네 가지 하위척도 점수들의 합산인 대인불안 총점은 유의하게 감소되는 변화를 보였다($t=1.974$, $df= 17$, $p=.066$).

부모교육의 실제와 효과

참석 부모들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생업과 거리상의 문제로 참석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휴가를 쓰거나 일당을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보호 관찰소 방문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감을 느꼈으며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조사나 재판과정을 기억하게 되어 많이 힘들다고 하였다. 참석한 부모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적극적이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일회 면담에 그치거나 꾸준히 참석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다. 저조한 부모의 참석률로 인하여 부모교육의 효과를 보려했던 연구 초기의 계획은 참석한 부모들의 소감을 중심으로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참석했던 부모님들의 프로그램 참가 소감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부모들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의 문제에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부모가 교육에 참석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하여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성교육이나 법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시각에서 접하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각을 경험함으로써 자녀를 이해해 나가고 지도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소득으로 들었다. 변화하는 법체계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과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함을 인식하였다고 했다.

프로그램의 세 번째 효과는 자녀와 함께 활동에 참가하고 심리검사를 함으로써 자녀에 대해 몰랐던 면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사춘기 이후 교류가 단절되었던 자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느끼게 되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 큰 소득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로 든 효과는 사건이후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교육을 통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세부 활동 항목들을 수정해 갔다. 먼저 법교육과 성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재검토했는데 이는 기존 교육과의 중복을 피하고 소그룹 형태에 적절하도록 수정하였다. 참가 청소년들은 수강명령 이수 과정에서 유사한 강의를 수강한 바 있으므로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활동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법교육의 경우, 최소한의 이론교육 외에 모의법정 형식으로 가해 청소년들이 역할을 정해 진행하고 직접 참가하였다. 법에 대한 주입식 강의와는 다른 체험을 하면서 법이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새로이 경험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인지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기반하며, 현장에서 활용가능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새로운 생활방식을 학습시키는 실제적인 교육의 효과를 얻는데 중점을 두었다. 부모를 참여시켜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연구초기의 계획은 부모들의 저조한 참석률로 인하여 우편과 전화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프로그램 기간 중 멘토를 통해 접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행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부모나 멘토와의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하고 현실적인 활동들을 실시하였다. 자기이해를 통한 현재와 미래설계, 대인관계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공격성과 분노조절, 사건에 대한 반성을 통한 피해자 공감의 활동들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현실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재범을 하지 않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가도록 조력하였다. 프로그램 참가 후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나 성격적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성폭력가해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검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참가 청소년들의 강간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상상을 성적대응전략으로 활용하는 경향, 정서와 인지적 우울경향, 언어적 공격성과 무계획적 충동성, 일반적 대인불안과 집단적 대인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지 응답 경향의 변화는 자기보고의 문제점을 고려하더라도 프로그램 참가 후 정신건강이나 사회적응과 관련된 특성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생리적 우울이나 신체적 공격성, 운동충동성 등이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활동들이 정서나 언어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온 것에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신체나 운동 등 전반적인 영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활동이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지필검사의 특성상 신체나 운동 영역의 변화를 세밀히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하여 추후 구조화된 부모면담이나 현장의 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과 함께 하기를 주저하여 참석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자녀가 연루된 사건의 공범 부모들끼리도 이미 아는 사이라 만나기를 꺼려하지는 않았으나 사건 합의 과정에

서 양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의 자녀가 공범의 꼬임에 빠져 일이 생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과 관련된 제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경기지역에 한정되었고 집단 내에 사건에 함께 연루된 청소년들이 함께 배정되는 등 공범배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대상자 선발과정의 어려움은 프로그램의 일반화나 효과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부모들의 출석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관찰소에서의 프로그램 참석에 대한 거부감이 주된 이유였으며 이는 부모교육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질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얻을 수 없어 기대하였던 질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가해 청소년들도 부모님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부모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의 출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보다는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어야 참석율을 올리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8회기의 제한된 시간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어 공감능력이나 자존감 향상 등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목표를 세울 수 없었던 것 또한 본 프로그램의 한계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범 방지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을 요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재범률을 보고하지 못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제한점들은 단시일에 해결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향후 연구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제언들은 제도적인 보완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조를 필요로 함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일부 지적능력 부족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지닌 것으로 진단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처치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되 전반적으로는 청소년의 일시적 비행행동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육에 부모를 함께 참가시키는 시도를 하고 부모-자녀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실시되어오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차별화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어 보고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들을 훈련하려던 초기의 연구 목적은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모들의 불편감과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의 미비 등으로 실현될 수 없었다. 대신 멘토 관계와 부모용 보고서 등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고 간접적으로나마 교육에 참여하도록 진행하였다. 사용된 가해 청소년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 이지만 멘티(대상자) 3-4명 당 1사람의 멘토(보조진행자)를 배정하여 부모들과도 보고서를 보내고 전화로 접촉하도록 하였다. 멘토들의 역할은 참가 청소년들과 주 3-4회 인터넷과 통신을 이용한 접촉으로 정서적인 지지와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으며 우범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후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멘토들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방안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회기별로 멘토들의 보고서를 통한 접촉이 부모와 멘티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모용 보고서는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가정에 알리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모와 교류하는 장이 되기도 하므로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범죄 억제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외부의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여도 현장에서는 보호관찰관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는 보호관찰관들 중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나 범죄심리사 자격을 가진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상황에 맞추어 융통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간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둘째, 가해청소년들의 부모(보호자)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내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소년법의 32조와 33조의 다양해진 보호처분 내 부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을 통하여 보호자는 교육을 부과 받게 되고 부모교육은 자녀와의 관계 개선과 선도를 위한 기술 습득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나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장의 상황과 관련된 현실적인 제약으로 8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멘토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가해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살핌이 가능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성범죄 가해 청소년과 부모 교육 실시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낙인효과를 줄여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참된 자기를 찾아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을 고려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실시되고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와 경험적인 자료들이 축적되어질 때, 향후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호관찰관이나 학교의 교사, 부모들이 가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선경 (2008).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 프로그램의

- 효과성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39, 135-161.
- 고성애 (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화 (199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연 (1998).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친밀감 및 신뢰감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행동특성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45-77.
- 법무연수원 (2006). 범죄백서.
- 송원영 (2007).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애현 (1998).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의진 (2006).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정신과 학교실 법무부 용역 연구보고서, pp. 8-18.
- 신의진 (2007).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처우에 대한 제언. 국가청소년위원회·연세의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 성폭력 가해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심포지움 자료집. pp. 40-48.
- 엄소용 (2007).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 접근의 내용. 국가청소년위원회·연세의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 성폭력 가해 청소년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심포지움 자료집. pp. 13-30.
- 오영근(2008).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2008년 춘계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개정소년법과 소년사법>, pp.9-26.
- 이성식(1995). 청소년 비행론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 형사정책연구, 6(4), 183-204.
- 이수정 (2006). 최신범죄심리학, 북카페.
- 이수정 (2007). 경찰단계에서의 범죄소년 다이버전을 위한 비행성평가절차의 재범예측력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47-57.
- 이수정, 김경옥 (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9), 83-99.
- 이수정, 조은경 (2005).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측발요인 조사도구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27-42.
- 이영준 (2007).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정신의학적·심리학적 특성과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국가청소년위원회·연세의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 성폭력 가해 청소년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심포지움 자료집, pp. 3-12.
- 이은미 (2000). 청소년 학교폭력의 요인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미 (2004).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돌보는 부모의 대처과정.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국 (2006). 소년의 책임과 회복적 사법. 소년보호연구, 9, 3-23.
- 이창수 (1999). 중고등학생의 제한경요인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영식 (1998).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1-26.
- 정일환, 최경희 (1997).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부모교육의 활성화 방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법정연구, 3, 197-229.
- 정진성 (2008). 지역사회 특성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연구. 2008년도 대한범죄학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pp.3-30.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인간존중프로그램 진행지침서 Vol. 2.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청소년성범죄자 인지 행동치료전문가 양성교육 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4).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 일본제도를 중심으로.
- Abel, G. G. Becker, J. V. & Cunningham-Rathner, J.(1984). Complication, consent and cognitions in sex between children and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 Achenbach, T. M. (1994).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lated instruments. In Maruish, M. E.(ed.), *The Use of Psycho;logical Testing for Treatment Planning and Outcome Assessment*, Erlbaum, Hillsdale, NJ, 517-549.
- Becker, H. S.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York: Free Press.
- Becker, J. V., & Hunter, J. A. (1997). Understanding and treating child and adolescent sexual offender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177-197.
- Carich, M. S., Newbauer, J. F., & Stone, M. H. (2001). Sexual offenders and contemporary treatment.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17.
- Constable, R. & Lee, D. B. (2004). 사례중심 가족치료와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with Families: Content and Process*). 이은진 외 3인 공역 (2008). 서울: 학지사.
- Elliot, D. S. & Voss, H. L. (1974). *Delinquency and Dropout*.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Esbensen, F. & Huizinga, D. (1993). Gang, Drugs, & Delinquency in a Survey of Urban Youth. *Criminology*, 31(4), 565-587.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ll, G., & Barongan, C. (1997). Prevention of sexual aggression: Sociocultur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Psychologist*, 52, 5-14.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dson, S. M. Jones, R. S., Marshall, W. L., Wales, D. S., Mcdonald, E., Backer, L. W., & McLean, A. (1993). Emotional recognition skills of sex offenders. *Annals of Sex Research*, 6, 199-211.
- Levant, M. D., & Buss, B. A. (1991). Parental identification of rapists and pedophiles. *Psychological Report*, 69, 463-466.
- Liska, A. E. & Reed, M. D. (1985). Ties to conventional institutions and delinquency: Estimat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547-560.
- Longo, R. E., & Groth, A. N. (1983). Juvenile sexual offense in the histories of adult rapists and child moles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27, 150-155.
- Malamuth, N. M. (1988). Predicting laboratory aggression against male vs. female targets:

-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 474-495.
- Malamuth, N. M., & Brown, L. M. (1994). Sexually aggressive men's perceptions of women's communications: Testing three expla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699-712.
- Marshall, W. L. (1989). Intimacy, loneliness, and sexual offende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7, 491-503.
- Marshall, W. L. (1996). The sexual offender: Monster, victim, or everyman?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8, 317-335.
- Marshall, W. L., Anderson, D., & Fernandez, Y. (1999).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John Wiley & Sons, Ltd: Brisbane.
- Patterson, G. (1982). *Cohes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 Quinsey, V. L. & Earls, C. M. (1990). The modification of sexual preference. In W. L. Marshall, D.R. Laws, & H. E. Barbaree(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NewYork: Plenum.
- Sefarbi, R. (1990). Admitters and deniers among adolescent sex offenders and their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0(3).
- Smith, R. (1984). *Patterns of re-offending among juvenile sexual offende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ashington, Juvenile Sexual Offender Program, Seattle.
- Smith, R., & Israel, E. (1987). Sibling Incest: A Study of the Dynamics of 25 Cases, *Child Abuse and Neglect*, 2.
- Tingle, D., Bernard, G. W., Robbin, L., Newman, G., & Hutchinson, D. (1986). Childhood and adolescent characteristics of pedophiles and rap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9, 103-116.
- 1 차원고접수 : 2009. 2. 9.
심사통과접수 : 2009. 3. 6.
최종원고접수 : 2009. 3. 19.

A Study on the Effects of Educational Program for the Juvenile Sexual Offenders under Probation and Their Parents

Eunjin Lee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was tri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preventive educational program for re-offending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which is based on a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30 juveniles under probation who committed sexual offenses. For the juveniles, CUSI(Coping Using Sex Inventory),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BDI (Buss-Durkee Inventory), 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 and Interpersonal Depression Inventory were us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as Pre and Post-Tests. Interviews with their parents were carried out to identify th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this program. I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juveniles suggested the significant positive shift in coping with stress using sexual images, affective depression, verbal aggression, reckless impulsiveness, and interpersonal anxiety. The parents in this research report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parental education program and anticipate the individual counseling concerning a parental role. These results confirmed the positive educational and therapeutic effects of the program for the juveniles and parents.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of the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preventive educational program for re-offending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juveniles under probation who committed sex offenses, parental education, coping using sex inventory

부록. 성폭력 가해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회기	제목과 목표	내용	기대효과
1	나를 표현하기 - 집단의 목적 및 프로그램 내용 소개 - 구성원간의 관계 형성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사전 면접과 평가 실시 - 프로그램 구조화와 내용, 멘토 선생님, 진행자 소개 - ‘나’의 별칭 짓기 - 모두에게 자기 소개하기 - 모두들 정하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화와 안내를 위한 회기> -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을 알고 참가자들과 가까워진다. - 자신을 소개하고 집단에서의 자기 모습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2	나 자신 돌아보기 -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기 - 개인의 인생 돌아보기	- 자기 사인 만들기 - 인생 그래프 설계해보기 - 인생 그림일기: 유년기, 아동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 그림 보여주기와 회기 마무리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회기> -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현재 시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 현재를 중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 봄으로써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
3	법교육 - 소년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 모의배심재판 참여	- 개정된 소년법 소개 및 이해. - 소년법 미니 퀴즈 - 모의재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판 구성원들의 역할을 맡아 재판 경험하기 - 재판 후 각자의 느낌과 생각 발표.	- 현재 개정된 소년법을 다시 한 번 숙지함으로써 범질서에 대하여 인식한다. - 모의재판으로 재판 구성원들이 되어 봄으로써 각각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살펴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유발.
4	분노 다스리기 - 분노 상황을 이해한다. - 분노 상황을 통해 나의 문제점 파악하기 - 내게 맞는 분노 조절 알아보기	- 분노에 대한 영상자료 시청하고 분노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분노상황을 입장을 바꾸어 역할극 해보기 - 분노상황 극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대안마련	- 분노조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를 통해 자신의 분노 표현 방식을 인식하며 분노조절의 다양한 방법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5	관계형성을 통한 미래계획 - 부모님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이해한다.	- 부모님과의 활동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경험을 가진다.	<부모님들과의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실행해 보는 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얻고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행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가 후 멘토 선생님들과 정리하며 경험을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 대화하고 멘토 선생님들은 관찰을 통해 관계에 대해 조언한다. - 가족과 함께하는 자신을 경험하고 자기 모습의 새로운 면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인식 갖기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앞으로써 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정확한 성지식을 전달 - 성과 관련된 청소년 세대의 행태와 언어에 대해 알아보고 성에 대한 왜곡된 태도 교정 -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여, 올바른 성인식을 갖게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관계의 의미와 내가 가진 성지식 테스트 해보기 - 잘못된 성관계의 결과 생각해 보기 - 임신과 출산의 의미 이해하기(출산과정 영상 보기) - 성적 자료들 중에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 등에 대해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회기에 진행될 <피해자 공감> 에 대한 준비 작업이 된다. - 자신의 과거 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뿐 아니라 향후에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갈 바른 지침을 얻는다.
피해자공감하기		
<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가해자 입장 및 가해자의 부모입장에서 벗어나 사건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 갖기 -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하기 - 피해자 및 주변 인물에 대한 사죄의 마음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워밍업 - 각자의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성폭행 사건 관련 영 상물을 함께 보기 - 인지적 왜곡, 합리화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가상의 예를 소개 -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적 맥락을 찾고 그 과정에서의 인지적 왜곡이나 합리화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 - 자신과 타인, 주변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감으로써 순간적인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한다.
생애 계획하기와 수료식		
<p>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1년 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기 - 수료식을 통해 재발 방지에 대한 의식 견고히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후 멋진 하루에 대해 상상해 보기 - 1년 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 보기 - 회기 마무리와 수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마무리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본다. - 8회의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진다.